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1966년 8월 11일 교시에 따라 조직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6월 30일 몸소 찾아 오시어 지난 기간 국방과학원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첨단 무장장비개발에 필요한 화학재료연구개발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연구소이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는 《화성》계렬로켓들의 열보호재료와 전투부, 분출구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쓰이는 여러가지 화학재료들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최근년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투부첨두와 고체발동기분출구제작에 리용하는 최첨단재료인 3D탄소/탄소-탄화구소복합재료를 연구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연구소실태를 료해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연구소가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 군수공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애국적인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많은 일을 하였다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과학기술성공전시실을 돌아보신 다음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첨두와 고체로켓발동기제작공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탄소섬유에 의한 예비성형체직조공정, 화학기상침적공정, 고압액상침적공정과 마감처리공정들을 료해하시면서 예비성형체의 밀도, 화학기상침적공정에서의 침적온도, 진공



도, 침적시간, 고압액상침적공정에서의 침적온도, 압력, 작업매질, 침적회수, 마감처리공정에서의 기술적특성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산한 첨두재료의 시험결과를 보고받으시고 로켓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선진국가들에서 만든것보다 밀도, 세기, 침식속도 등 모든 특성값이 더 우월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고체로켓발동기제작공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당중앙의 전략적구상과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제작에 리용하는 고강력섬유와 로켓전투부첨단재료인 탄소/탄소복합재료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여러차례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통하여 대기권재돌입능력을 립증한것은 로켓공업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주체적국방력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사업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전략로켓개발에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가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단위인것만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적측면에서 흠잡을데없이 연구소를 일신시키고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과학연구개발과 생산이 일체화된 최첨단연구기지로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에 고강력섬유감기반에 의한 발동기생산공정과 탄소/탄소복합재료에 의한 로켓전투부첨두 및 발동기분출구생산능력도 보다 확장하여 고체로켓발동기와 로켓전투부첨두를 팡팡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연구사업의 성과여부는 중요하게 일군들의 사상관

점과 일본새, 사업기풍에 달려있다고, 실적과 기술을 보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험기구들, 분석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그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조건,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우리 당을 따르는 순결한 총정의 일편단심을 간직하고 당의 국방과학정책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이 연구소의 일군들과 같은 숨은영웅들, 애국적인 과학자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의 이름으로 특별감사와 특별상금을 배려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당에서 매우 중시하고있는 국방과학연구기지들중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연구소개건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결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과 높은 애국심, 영웅적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자위적인 국방력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기도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과학기술결사전으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과 국방공업정책을 더 높이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령도자를 따르는 신념의 길에 인생의 영광은 빛난다

## —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

### 김련옥

신념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장 값높고 빛나는 삶인가. 시대의 절절한 이 물음앞에 서니 한 통일애국투사의 반신상이 눈앞에 뜨겁게 떠오른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을 알고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가장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

그의 고결한 생은 령도자를 따르는 신념의 길에서 전사의 삶도 빛나고 인생의 영광도 빛난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생일 100돐이 되는 지난 8월 24일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장된 그의 묘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리인모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10년. 세월은 망각의 이끼라지만 그 흐름과 더불어 대를 이어 더해만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국투사는 오늘도 영생하고있으니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새겨주는 철리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곧 신념이고 승리였다

사람들은 오늘도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5년밖에 살지 못한 리인모동지가 어떻게 되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가혹한 정신육체적고통을 이겨내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 불굴의 혁명가로 영생의 언덕에 오를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묻곤 한다.

만사람을 경탄시킨 리인모동지의 불굴의 삶의 원천, 그것은 다름아닌 자기 령도자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였다.

망국의 세월 풍산의 두메산골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리인모동지는 아버지없는 설움보다 나라없는 슬픔을 더 뼈에 새기며 자라야 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군 한 무장소조가 파발리에 올린 혁명의 총성은 억눌린 가슴에도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 있어 해방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소중한 신념이 울르고 자라게 하였다.

홍안의 시절 김일성장군님 휘하에서 싸울 결심으로 유격대를 찾아 동북광야를 누빌 때에도, 두차례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만나뵈고 가르침을 받는 행운을 지냈을 때에도 리인모동지의 가슴속에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산같이 커만갔다.

하여 리인모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싸우는 길에 조국해방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굳은 확신을 간직하고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되어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북부북경일대와 서울, 도교에까지 안고가 반일항전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항일대전의 승리로 찾아온 해방의 감격은 리인모동지의 가슴속에 그러한 신념이 더욱 역세계 뿌리내리게 하여준 자양분이고 활력소였다.

신념은 체험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다.

난생처음 수령님 주신 땅에서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짓고 로동자들이 공장 주인이 되어 새 민주조국을 일떠세우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수령님께서 계시어 새 조선도 있고 인민의 참된 삶도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한 리인모동지였다.

그래서 고향마을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고 풍산군당 선전부장, 홍남시당 선전부장으로 개마고원을 넘나들며 힘든줄 모르고 건국열로 가슴을 뿜어냈다.

가렬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의 필봉을 들고 불타는 전선을 종군하였던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리산 인민유격대에서 적후투쟁을 벌리던 중 총상을 입고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도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과 당기앞에서 다진 당원의 맹세를 지켜 굴함없이 싸웠다.

지금도 리인모동지의 청춘시절, 인생의 황금시절이 흘러간 남쪽의 차디찬 감방안에 마음을 세워보면 누구나 가슴저려움을 금하지 못한다.

3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전향을

강요하는 교형리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하여 뼈가 부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던 그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너비가 다섯뿔 반, 길이가 열세뿔밖에 안되는 작고 캄캄한 독감방에서 겪은 소름끼치는 고통, 국그릇에 담긴 쥐가리 건져먹지 않으면 안되었던 참기 어려운 굶주림, 추운 겨울날 찬물을 뿌려 쫄쫄 얼군 알몸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야수적인 전향 강요고문...

그러나 리인모동지는 불사조마냥 굴하지 않고 싸웠으며 가슴속깊이 간직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조그모 굵히지 않았다.

당시 세계적으로 최장기수라 일컬어온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의 감옥살이가 27년간이었다는 점을 놓고볼 때 리인모동지의 젊음과 육체를 무참히 짓밟고 빼앗아간 34년간의 옥살이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다.

여기에 15척당장아래 죽음의 철창속에서도 투사가 신념을 버리듯 한자 두자 써내려간 옥중시구절이 있다.

...  
 청춘을 헛되어 보내지 않은 기쁨이여 영광이여  
 네 뼈마디에 마지막기름이 마르고 네 가족이 백골보다 앙상한 뼈를 감쌀 때까지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

떨진 소금목물에 비친 앙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었다는 이 시에 그의 송죽같은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진하게 비쳐있는가.

이 땅의 혁명가들에게는 하나의 강대한 신념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다.

리인모동지의 신념이 드림없었던것은 바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 그이에 대한 절대적믿음

### 절세위인을 모시여 신념의 삶은 더욱 빛난다

파사로운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운명도 삶도 꽃피어나는 것이다.

어제날의 평범한 종군기자였던 리인모동지가 만사람이 축복하는 공화국2중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인생의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오를수 있는 것은 바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인모동지의 투쟁사실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를 데려오는것을 조국이 줄수 있는 최대의 믿음으로, 마땅한 도덕의리로 간주하시고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송환작전을 펼쳐주시었다.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의 자랑,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우시며 송환과 관련하여서만도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니 그의 심중에 언제나 전사 리인모가 자

라 의리가 그의 온 넋을 사로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전향문 한장이면 순간에 나설수 있는 감옥문을 눈앞에 두고도 량심과 의리의 길, 비전향의 길에서 투사는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육신이 깃이겨지는 모진 고통속에서도 그의 가슴에서 역세계 피어난것은 신념의 진달래였다.

리인모동지가 해빛한점 스며들지 않는 감옥안에서 자기에게 차려진 한모금의 물마저 부어가며 떨기떨기 피운 진달래꽃, 그것은 찬서리를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봄의 선구자, 신념의 승리자로 살려는 리인모동지의 넋이었다.

한평기 진달래꽃앞에서 이 세상천지 어디에 가도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과 민족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살 불같은 신념을 버리었고 그 신념으로 사상전향을 틀어막는 교형리들과 끝까지 싸워 이긴 투사였다.

그가 폐인이냐 다름없는 섬약한 몸이 신념 하나만을 안고서 34년만에 감옥문을 나서던 날 북행길을 단련할것을 지껄이는자에게 추상같이 터친 웨침이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내 조국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 시국이 어떻든 내가 내 조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내 북행길을 막지 말라.》

리인모동지가 기어이 찾아가리라던 조국, 그것은 다름아닌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었으며 그 파사로운 빛과 열은 그가 모진 악형을 이겨내고 승리할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었다.

누구나 쉬이 지닐수 없는 수령송배의 불타는 심장,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도달할수 없는 철의 신념과 의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것이 며 수령님은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하늘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우리가 리인모동무를 높이 평가하고 내세우는것은 그가 전향서 한장만 쓰면 고생을 면할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당적량심을 더럽힐수 없고 혁명적 신념을 저버릴수 없어 34년동안이나 무서운 옥고를 치르면서도 혁명가의 절개와 지조를 꺾듯이 지켰기때문이라고, 리인모동무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럼지 않게 잘 싸웠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당의 품에 땀띠 안길수 있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에서 자라 그 자양분으로 살며 싸워 승리한 리인모동지의 투쟁의 삶은 천만사람들에게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야말로 혁명가가 지녀야 할 신념중의 신념이고 인생의 승리이라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리잡고있었음을 과연 이 세상 그 누가 알수 있었으랴.

그러시고도 마음속아쉬움이 있든 신트 아직은 남조선에 있는 전사에 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에 대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온 나라에 발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분별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전해진 그날의 사랑의 전과는 고목과도 같은 전사의 병든 몸을 일으켜세우고 죽음을 이기게 한 불사악이 되었다.

하늘도 울리고 땅도 울리는 전설같은 사랑이 있어 수십년세월 그처럼 간절히 그리던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상봉을 눈앞에 두게 된 리인모동지의 딸이 장군님께 삼가 고마움의 편지를 올리였을 때였다.

40여년세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는 그의 심정이 마음을 아프게 찢르고 생사기회에 놓여있는 전사의 삶이 심중에 무겁게 안겨들여 걱정을 금치 못하신 장군님께서 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사랑하는 전사를 하루빨리 자신의 품에 안아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주고싶은 절박함, 한시바삐 민족의 이 비극을 끝장내고야마실 불같은 의지가 그의 심중에서 세차게 고래치고있었으리라.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몸소 활달한 필치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있습니다 김련옥 1993. 2. 24.》 라는 뜻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옥중에서 폐인이 된 그에게 유능한 치료진을 보내기 위한 제안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게 되자 귀중한 약재만이라도 보내주어 그를 소생시키도록 하신 장군님의 사랑속에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 《리인모소생의 신화》가 꽃피었고 그의 력사적인 송환을 두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승리》로 온 세상이 격찬한 《20세기의 기적》이 펼쳐질수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이끌려 리인모동지가 드디어 관문점분리선을 넘어 것처럼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숨쉬는 화석》이나 다름없는 한 전사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고 땅에서는 구급소생차가 달리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그가 《사랑에 대한 생각》이라는 노래에서 격정에 겨워 터쳤듯이 세상에 그렇듯 뜨겁고도 위대한 사랑이 있는줄 분리선을 넘어서야 눈물겹게 알게 된 리인모동지였다.

진정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바꾸어주신 장군님은 운명의 구세주, 사랑과 의리의 화신 이시였다.

리인모동지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 1년이 되던 1994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우리 당이 1년전에 왜 리인모를 데려오자고 하였는가, 리인모로 말하면 34년동안이나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를 믿고 30~40년을 싸워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주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리인모동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대학시절에 읽으셨던 어느 한 나라의 포로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랑스로포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것은 결국 령도자를 잘못 만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리인모를 데려올 때 그 전에 보았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데려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기는 하였지만 투쟁을 벌려 리인모를 데려왔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화신

이신 장군님이시였기에 어제날의 평범한 종군기자였던 전사를 위대한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고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당원증과 금시계를 받아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영광도 누릴수 있게 해주시였다.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은 이에만 그치지 않으시였다.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요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주석단의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 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러보게 하자고, 고향의 소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자고 세심하게 보살피주신 장군님.

그이가 아니시라면 리인모동지가 어떻게 그런 영광의 단상에 설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해외동포들이 지성껏 마련한 귀환이불을 선물로 받으시였을 때에는 수십년세월 차디찬 감방에서 추위에 떨던 전사의 어제날이 그리도 마음에 맺히시어 고스란히 그에게 보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리인모동지가 헌시에도 썼듯이 끊임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고 싶어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아래 그의 집은 앞방에도, 뒤방에도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으로 딱 차고넘쳤고 그는 누구나 누릴수 없는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게 되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재생의 활력소가 되어 남조선에 있을 때 하루 이를밖에는 살수 없다고 사망선고를 받았던 리인모동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90장수를 누리며 14년이라는 기적의 삶을 살았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배려로 대양과 대륙을 넘어 지구의 반대편 머나먼 나라에서 치료를 받던 때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리인모가 어느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기자들은 그에게 남은 여생에 더 하고싶은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때 리인모동지는 《가던 길을 계속 가는것이다. 숨지는 순간까지》라고 대답하였다.

비록 대답은 짧았지만 리인모동지는 그 말처럼 숨지는 순간까지 수령을 따르는 신념의 한길만을 걸었다.

주체96(2007)년 6월 16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전사를 잃은 슬픔을 누르지 못하시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의식을 아직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인 인민장으로 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 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겨레의 통일념원이 깃든 평양의 통일거리에 그의 반신동상까지 세워주시어 온 나라가 영웅의 값높은 삶을 따라배우도록 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상징으로 솟아있는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리인모동지.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의리가 있어 리인모동지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애국의 삶으로 빛나고있다.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이긴다

지난 8월 24일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인모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그의 묘에 보내주신 화환전진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하늘도 머리숙일 우리 원수님의 지극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뜨겁게

비긴 화환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화환당기에 새겨진 태양의 존함과 함께 화강석비둘기에 더욱 빛나는 영웅의 사진, 그 밑에 정히 새겨진 영생의 글발들... (3면으로 계속)

# 승리를 믿으라, 미래를 믿으라!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에서 사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선군철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선군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남기신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공화국에서 제정된 국가적명절이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 건군설목표를 밝혀주시며 앞으로 우리 나라를 어떤 적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군사의 강국으로 만들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그날의 발걸음은 단순한 군부대방문이 아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계승완성하여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백두산장군의 신념의 발걸음이었다.

력사의 그날에 다지신 신념의 맹세를 지켜 장군님께서 한평생 선군의 험한 길을 걸으시었다.

지금도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강행군시기를 군대와 인민은 잊지 못

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대정치파동이 지구를 흔들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총공격의 화살은 우리 나라에 집중되었다. 민족의 대국상과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전체 인민이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었으며 백두의 훈련열풍이 나래치는 훈련장에서 군인들의 종합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며 인민군대를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어느해 맵쌀 겨울날이었다. 최연전치고도 제일 멀고 험한

곳에 위치한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병사들은 너무도 기쁜 사실에 와—하고 환성을 올리였다. 장군님께서 부대를 찾으시었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타고오신 차를 보는 순간 병사들은 굳어졌다. 승용차는 분명한데 도대체 형체를 알아볼수 없었던것이다. 조금 드러나 앞차창과 전조등불빛만 아니라면 갈데없는 눈무지였다. 바로 이렇게 헤쳐가신 길이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었다.

주체85(1996)년 3월 어느날은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가 잡고 달린 주행거리가 1000여리에 달한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이어나신 선군장정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그이께서 8.25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선군장정을 이어나가시며 찾으신 인민군대의 단위는 무려 5200여개에 달한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나는 선군길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기어이 가자는다.

인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다 리해하게 될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조국과 후손만대를 위해 무엇을 해놓았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이제 보라. 통장훈을 부를 날이 꼭 온다. 동무들 믿으라! 승리를 믿으라! 미래를 믿으라!...

승리할 때일을 굳게 확신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며 즐기찬 열차강행군을 하신 그이, 인민을 위해 하신 천만가지 약속은 다 지키시면서도 자신의 휴식 약속은 언제 한번 실천하지 못하신 장군님이시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올랐고 장쾌한 핵력성이 지구를 흔들어 깨워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날 수 있었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져나와 강성번영으로 내닫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이 높이 펼쳐질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선언하신 그대로 지금 공화국에는 승리의 밝은 아침이 동터 오고있다.

다섯해전 8월의 전선길에서 선군철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니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입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읍시다.》

그이께서는 세계를 이어 핵으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실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국가핵무력강화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첫 수소탄시험과 핵무기병기화사업, 전략잠수함탄도탄시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시험 등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할 때마다 몸소 현지에 나가시어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무기개발에 자기의 온넛과 지혜를 바쳐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

제들에 명철한 가르치심도 주시며 새형의 첨단무기개발사업들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한 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한밤중과 이른 새벽도 가림없이 휴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스스럼없이 찾고찾으시며 새형의 첨단로켓개발의 초행길을 앞에서 헤치시었다. 그이의 이렇듯 끝없는 헌신과 로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가 두차례에 걸쳐 통쾌하게 성공하는 세계적인 기적이 창조될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우리 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강화하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필승의 신념과 배짱, 담대한 기상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어 세계적인 핵강국, 로켓맹주국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앞길에 끝없이 융성번영할 사회주의강국의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애국렬사 리인모선생의 묘에 화환 진정

애국렬사 리인모선생 생일 100돐을 맞으며 24일 신미리에국렬사묘에 있는 그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앞에 놓여있었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중앙기관 일꾼들, 비전향장기수들, 유가족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리인모선생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사회단체, 중앙기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맹기에는

《애국렬사 리인모동지를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

하여 견결히 싸운 참된 혁명전사이며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선생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본사기자

(2면에서 계속)

두해전 리인모동지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한생을 변함없이 남편을 기다려온 김순임녀성의 사망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몸소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의를 잘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인모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화환, 여기에는 당과 수령을 위한 길에서 신념의 한생을 빛내인 리인모동지를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고 변함없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와 이 땅의 천만군민이 오늘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리인모와 같은 신념의 인간, 의지의 인간으로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은 승리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우리 조국과 인민이 헤쳐온 간고하고도 영광넘친 혁명의 길은 신념으로 전진하고 신념으로 승리해온 투쟁의 길이었다. 이것이 그 어느 나라 혁명파도 다른 조선혁명의 특징이고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세상의 모진 풍파, 역경에도 끄떡없이 승리를 향해 오직 앞으로만 기운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난관을 뚫고 최후 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고있다.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인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조국은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동방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위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온 행성이 조선총력에 휩싸이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하늘땅에 차넘치기 시작했다.

본사기자 고성호

사변은 천출명장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와 희생적인 애민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지척에서 바라보고있는 이 격동적이고 기적같은 현실은 리인모동지가 한생토록 간직했던 신념,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령도를 따를 때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이 얼마나 위대한 삶과 투쟁의 진리인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이 땅에서 사회주의의 최후승리의 만세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조선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이고 불의와 압제의 비참한 파멸이기에 악의 제국은 추종국가, 거수기들을 총동원하여 가장 비열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고 《선제타격》, 《예방전쟁》을 들먹이며 우리의 기를 꺾고 전진을 멈추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백두산을 마음에 얹고 신념으로 헤쳐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되돌려세울수도 없다.

세상에 핵무기보다 더욱 강한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며 그 위대한 단결의 기초에 천년안받침처럼 굳세게 놓여있는 것이 자기 령도자만을 끝까지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리이다. 세상이 백번천번 변해도 변하지 않는것이 조선의 이 신념이고 설사 지구가 깨어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깨끗한 의리이다.

리인모동지가 생전에 터친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의 웨침은 오늘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활과 투쟁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고있다.

오늘도 리인모동지는 영생의 높은 언덕에서 우리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웨치고있다.

김정은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이긴다.

이 신념의 철리를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그이의 애민헌신의 발걸음에 진군의 보폭을 맞추어나갈 때 우리 조국과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천만군민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의 삶과 투쟁을 한생토록 본받아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에서 끝까지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을것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 두자루의 총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으로

공화국의 력사는 선군으로 시작되고 선군으로 승리를 떨치며 오늘에 이른 선군의 력사이다.

일찌기 열매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시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머니으로부터 반일 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었던 아버님이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넘겨받으시었다. 그 두자루의 권총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와는 총을 들고 맞서싸워 나라의 독립을 안아와야 한다는 아버님의 절절한 당부가 어려어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던 나날 안도에 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쳐드시고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자루를 밀철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밀철이 있으니 이것을 자루 굴려 2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

이렇게 두자루의 권총을 틀어쥐고 떠난 김일성항일빨찌산대오는 인원과 장비를 끊임없이 보충확대하면서 모진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끝끝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청소한 공화국이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가지고 《최강》을 뿜내던 미국을 꺾꾸러 뜨린것은 위대한 주석님의 선군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승리이고 기적이였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항시적으로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했지만 선군총대의 위력앞에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거듭해왔다.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주석님으로부터 권총을 혁명의 계주봉으로 넘겨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령도를 시작하시었으며 한평생 선군장정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었다. 그 길에서 자위의 핵이 태어나고 강성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맞이하는 새해의 첫 아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시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어 빛내여오신 애국위업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굳은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시고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국가방위의 절대병기인 수소탄과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제는 미국이 핵으로 공화국을 위협하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갔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망각하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고 한다면 침략의 소굴인 미국본토가 불바다에 잠기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되게 되었다.

두자루의 권총이 오늘날 세계가 공인하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강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선군의 뜻을 올릴 당시 망국의 비참한 운명에 처해있던 조선이 이제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핵강국이 되었다.

첫 출발을 알리던 그 시각부터 오늘날까지 선군은 언제나 승리라는 절대값만을 산출하였다.

선군이 승리라는것은 공화국의 빛나는 력사를 통하여 증명된 과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위대한 선군의 조국인 공화국은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 령 장 의 담 력 과 배 쟁

조선과 미국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최후대결전은 지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력에서 대비가 되지 않는 대결이지만 수세에 몰리고 공포와 패배의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은 미국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끝장내고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려는 조선의 결단과 배심은 의기양양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도전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이 명실상부한 핵강국이 며 강력한 정의의 힘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라는것이 그이의 담력과 배짱이다.

그이의 담력과 배짱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천사만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강한 자주적대, 그 어떤 위협공

공이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제압하는 담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인간이 담이 약하면 인격이 손상되며 나라나 민족이 담이 세지 못하면 국가의 리익이 침해당하고 민족의 권위와 존엄이 훼손당하게 된다.

담력이 크지 못하고 배짱이 세지 못하면 꺼내들었던 칼도 도로 집어넣는다.

1962년말에 있는 까리브해위기사건의 전말이 그러하다.

당시 미국은 쿠바에 배비한 로켓들을 철수하라고 소련에 강박하고 쿠바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상봉쇄로 위협을 조성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소련은 자기의 로켓들을 철수하였다. 국력은 미국에 짝지지는 않았지만 담이 약해 미국의 허세에 눌려 위 켈쳐진 비극적현실이었다. 그때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은 단시일에 끝나지 않으며 더우기 전쟁에서 이길 승산도 안보이고 그렇다고 협상을 한다 해도 상대를 압도하겠는가 하는 우려와 불

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더우기 제일 두려워한것은 소련이 대웅조치로 서부베를린을 공격하고 핵전쟁도 불사할수 있다고 가상한 최악의 경우였다. 그래서 택한것이 전쟁도 아니고 맞대응도 아닌 공해상에서의 봉쇄작전이었다. 그런데 소련은 종이범앞에서 스스로 사양총을 내려놓은것이다. 로켓들을 힘있게 가져갈것이 있는가, 여기서 소련땅으로 날려보내주겠다고 한 쿠바의 자존심보다도 못한 대국의 비굴성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그때로부터 여섯해후인 1968년 1월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몰아왔던 《푸에블로》호사건에서 미국을 보기 좋게 누르고 강자의 본래를 보여주었다.

분별없는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이 극도에 달했을 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렇게 엄숙히 선언하시고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강철의 담력과 산악같은 배짱이 안아온 조선의 통쾌한 승리였다.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본 《푸에블로》호사건, 까리브해위기와 같이 국력이 어스비슷한 대국간의 대결이 아니라 령토나 경제, 군사력 등 여러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량자의 대결에서 조선은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담력과 배짱의 거장들이였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들이대는 공화국의 담대한 기개와 배짱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안아오신 련전련승의 력사와 전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

을 침해하고 말살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오만방자한 거망등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또 한분의 제일담력가, 제일배짱가이시다.

그 어떤 강적의 전횡과 도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맞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맞받아나아가는것이 그이의 굳센 담력과 배짱이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성성공 그리고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화성-12》형시험발사성공,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성공,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 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떠나서 말할수 없다.

철단무기가 결코 적대세력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그 어떤 무기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공화국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배짱, 의지에 의하여 공화국의 로케

트공업이 개발창조형으로 비약하고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도발자, 침략자들을 징벌할수 있는 모든 핵공격수단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비되게 되었다.

지난 8월 중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하시며 미국이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견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며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다시금 언명하시였다.

남조선에서도 김정은위원장 은 자주국방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 세계가 그분이 원하는대로 흐르고있다, 북의 강한 배짱과 자주정신은 놀랍다, 북은 미국을 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것을 다하고있다는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 어떤 광풍에도 드물지 않는 역센 자주적신념과 백두산악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 계시고 무적의 자위적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반미최후대결전에서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리 설



## 청년 강국의 존엄과 위용

청년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있다. 조선 중앙TV방송에서는 해방 직후의 북잡다단했던 청년운동과 관련한 내용의 TV연속소설 《첫 기술에서》가 방영되고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사회와 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오고있는 조선청년들.

오늘 청년강국으로 더욱 빛나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절세위인들의 청년운동에 대한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 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 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고,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조국보위초스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었다고 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

공으로 내세워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청년들을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결고 함께 나아가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어주시며 그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 의 거인으로 내세우시는 그이이다.

청년들의 조직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을 모시도록 하고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질것이라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분, 주체 100년대의 첫해에 맞이하는 뜻깊은 청년절에 전신시찰길에서 청년절경축 행사대표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고 청년강국의 주인이라고 청년들의 지위와 존엄을 시대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분인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공화국의 500만 청년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 몰아치는 발전소건설장에 거둬들여 찾아오시어 청춘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친부

모도 주지 못한 사랑을 거둬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안고 청년들은 10년동안에 할 일과 맛먹는 반대한 공사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웅장하게 일떠선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시고 오래도록 언제를 바라보시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년강국의 앞일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려면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기기에 그 쌓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하시며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격정에 넘쳐 읊으신 시의 구절구절에는 청년들에 대한 그이의 믿음과 사랑, 자랑과 긍지가 다 담겨져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어져 나라는 나라들에서 청년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되어 청

년쇄국, 청년망국의 개탄소리가 터져나오고있지만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고있다. 세계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강국중의 진짜강국은 주체의 청년강국 조선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하여 사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전도가 끝없이 밝고 양양한 나라를 가리켜 청년강국이라고 할수 있다. 아무리 령도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재부가 넘쳐나는 대국이라고 하여도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그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인류력사에 청년들은 어느 때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여기고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위대한 태양의 열과 빛으로 청춘의 숲을 이룬 애국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 청년대군을 가지고있고 공화국이 강하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 —보통문거리고기상점—

###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곳

얼마전 우리는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자리잡은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찾았다.

3층으로 된 상점은 특색있는 건물외형도 마음에 들었지만 내부는 더욱 회한했다.

황홀경을 이룬 장식등, 거울을 붙인 대리석기둥들, 은은한 바다라일 등 보이는 것마다 탄복을 자아냈다.

지배인 립은숙의 말에 의하면 영업을 시작할지 6년 남짓한 기간 상점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다고 한다.

산물고기매대에 이르니 맛이 좋기로 손꼽히는 뱀장어, 회귀한 통정어, 철갑상어를 비롯한 물고기들과 최고의 원기보충용 보약제로 알려진 자라 등이 여러가지 형태의 수조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있었다. 손님들이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제손으로 고르

리고기, 돼지고기, 타조고기를 비롯한 각종 고기류들이 그득그득 쌓여있었다. 고기도 등심살, 가슴살, 세겹살, 꼬리, 코, 귀, 옆통, 발쪽, 위, 간별로 포장되어있는데다가 통줄임, 팔바싸, 햄, 고기만두, 고기절임 등 고기가 공제품들도 없는것이 없었다.

랭 동물고기매대에도 붉은 대게, 문어, 낙지, 멸치, 명태, 메기 등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있었다.

특색있는 수산물로리와 각종 불고기를 만들어 봉사해주고있는 3층 식당에서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철갑상어찜을 맛나게 드는 사람들과 단란한 분위기에서 불고기며 시원한 평양랭면을 받아들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로 더욱 흥성거리고있었다.

상점을 돌아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모든 상품들이 다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것이였다.

소고기는 공화국의 유명한 송암명기소목장의것이였고 철갑상어와 통정어는 통정어장의 물고기들이였다. 상품가격도 원가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인민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칠면조고기, 계사니고기, 오메추리고기, 닭고기, 오

와 통정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가격을 알아보시고 가격이 높다고 인민들이 마음놓고 사갈수 있게 하자면 가격을 훨씬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 가격까지 정해주시었다고 한다.

사실 원래의 가격도 흔히 맛보기 힘든 희귀한 물고기들인데다가 거기에 들인 막대한 원가에 비해볼 때 늦게 정한것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려지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훨씬 더 낮추도록 하시였으니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치타산도 앞세우지 않으시는것이 그이의 계산법이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상점을 떠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라고 당부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꽃피워나가려는 일념으로 이곳 봉사자들은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도록 뛰고 또 뛰었다.

상점을 찾는 손님들은 이곳의 상품들이 100% 국내산상품이고 그 질도 수입산상품과는 대비도 할수 없게 최고라고, 봉사환경도 좋고 봉사성도 높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며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호소문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에서 방대한 전쟁수단들과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전례없이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는 폭발전야에로 치닫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일어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해내외의 온 겨레가 펼쳐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동원되는 전쟁장비와 그 규모,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철두철미 북침을 겨냥한 핵전쟁전주목이다.

핵을 가진 교전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측을 향한 한방의 우발적인 총성에 의해서도 전면적인 핵전

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우리 민족구성원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전쟁연습에 동원된 미군장갑차앞에 서슴없이 나서서 한몸으로 저지하였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기개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어지럽히는 전쟁연습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남녘땅에 《싸드》와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미국의 전쟁도발기도를 반대하여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가자!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2. **남녘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미국이 떠드는 《한미동맹》이니, 《혈맹관계》니 하는것은 저들의 침략본심을 가리우고 남녘겨레의 높아가는 반감을 녹잡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조선반도를 동북아시아패권전략실현의 지렛점으로 만들려는것은 미

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이를 위해 서라면 이 땅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수천수만명의 우리 겨레가 죽어도 무방하다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무력증강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자!

삼천리강토를 핵전쟁터로 만들고 우리 겨레를 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우리 조국 남녘땅을 가로라고 70년이 넘도록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군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을 불러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미군이 없어야 우리 민족이 편안하고 전쟁의 불안이 근원적으로 가셔지게 될것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앞길이 열리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녘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지체없이 몰아내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미군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전민

족적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3. **내외반통일세력의 친미시대, 동족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오늘날 최악의 과육에 처한 북남관계가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최절정에 달하게 된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해나서는 남측당국의 사대굴종에 그 원인이 있다.

동족을 제재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발벗고 동참하면서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남측당국은 외세추종이나 민족자주와 평화변영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엄정한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내맡기려는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반대배격하자!

남측당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싸드》 추가배치와 미국의 핵전략자산반입을 비롯한 위험하고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대중투쟁을 보다 적극 벌려나가자!

극악한 친미시대와 외세굴종정책을 단죄하고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온 겨레가 반미자주화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북남관계개선도 있으며 민족변영의 활로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정의의 반미성전,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리라는 굳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7년 8월 24일  
평양, 서울, 도쿄

## 《안보위기책임》을 둘러싼 개싸움

최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결고 떠들며 남조선의 여야당들이 《안보위기책임》소동을 벌리고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이번 기회를 《정국주도권》을 잡아 보려는 야심때문에 남조선의 현 《정권》을 《안보무능(정권)》, 《평화구결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안보위기》의 책임이 당국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현 《정부》 취임 100일을 계기로 《현(정부)는 안보

는 먹통, 북핵에는 무능》, 《6.25이래 최대의 안보무능(정권)》, 《사태악화는(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비난해나섰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위기》수습의 길은 《(한) 미동맹강화》와 《미국의 외

교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고 떠들면서 《련일 위기설을 조장하며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것은 야당이다.》, 《9년동안 허송세월하며 안보를 망쳐먹은 리명박, 박근혜세력들이 100일된 현(정부)에 위기책임을 전가한다.》, 《야당이 대화를 접고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고있다.》는 등

으로 《안보위기》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보수패당이라고 성토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야당패거리들이 《안보위기책임》을 떠들어대는 속심은 다

로 싸늘해지는 민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하나 다른데로 돌려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조금이나마 유지해보려는 비렬한 술수이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는 보수세력이 집권기간에 《천안호침몰사건》과 《지뢰폭발

사건》을 비롯한 특대형 모략극들을 조작하고 지

어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이 북남간에 총포탄까지 오가는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옴으로써 온 남조선 땅을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잠기게 했던 악몽의 나날들을 잊지 않고있다.

화해와 협력의 봄물결이 드높던 함격의 시대를 불신과 대결의 빙하시대로 돌려놓고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동족대결집단,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불러오는데 앞장섰던 전쟁범죄집단이 그 무슨 《안보위기》를 운운하며 책임전과놀음을 벌려놓고 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대한 도전이다.

남조선의 보수야당패거리들은 철면피하기 그지 없는 《안보위기책임론》으로 민심을 우롱하려들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잔명마저 비참하게 끊기우게 될것이다.

《안보》를 결고

《(한) 미동맹강화》와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해나서는 남조선의 여당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의 하수인, 전쟁사환군이 되어 사대매국파 동족대결을 일삼다가 비참하게 운명을 마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며 민심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진짜 《안보위기》는 위협천만한 열핵전쟁을 불러오는 《(한) 미동맹강화》에 있다.

민족자주만이 살길이고 민족대단결에 평화와 번영이 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공화국의 자위적책무력은 민족변영의 만능의 보검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알려진바와 같이 17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 위원회를 벌려놓고 일 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 일본의 방위력확대에 따른 반공화국군사적압박공조를

풀자로 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을 행각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단 포드는 아베와 《자유대》 통합마로장 등을 만나 공화국의 핵, 란도로케트 《위협》에 따른 공동대응방안이라는 것을 모의하며 쑥덕공론을 벌려였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흑가이도지역에서 미해병대와 특상 《자유대》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큰 규모의 미일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이어 16일에는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련합공중훈련을 벌리는 등 실천행동에 의한 군사적결락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대조선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민족의 백년숙

적들의 불순한 야합으로서 가뜰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협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미국은 일본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로 틀어쥐고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적결락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일본도 조선반도 긴장장격화가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실현의 좋은 기회라는 악사바른 타산때문에 《북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상전의 북침전쟁책동에 발벗고 나서고있다. 오늘날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천만한 군사적결락은 지난 세기초 미일침략자들이 강도미일침략자들이 강도적인 《가쓰라-타프트 협정》을 조작하고 서리하는 등 실천행동에 의한 군사적결락을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반공화국군사적결락은 스스로 비

참한 파멸을 불러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망동이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 조치들에는 자신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뿐 아니라 그에 추종하여 제 죽을줄 모르고 설쳐대는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있다. 이 의미심장한 충고에 심사숙고할 대인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보복의지를 시험하려 든다면 상상 못할 비극적후과가 초래되게 될것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될수 없는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것이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뿌리깊은 대조선침략야망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파멸의 대륙이기는 반공화국군사적결락

## 탄평 드러난 《최강》의 실체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과연 그런데가 없다.

최근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이 민간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신기술이 도입된 레이다장비까지 갖추었다는 이지스구축함이 눈앞에 다가오는 3만급유조선도 발견 못했다는것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다 사고결과는 더욱 처참하다.

민간선박과 충돌한 이지스구축함 《존 맥케인》호는 선체가 심히 파손되고 일부 격실이 침수되어 10여명의 승조원들이 실종된 반면에 민간선박은 선체의 일부만 손

상되었을뿐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최첨단기술이요, 뒤요하면서 《힘》의 상징처럼 내흔들며 자랑하던 미군의 《신의 방패》 이지스구축함이 전투함선도 아닌 민간선박과의 충돌에서도 허리부러진 승냥이신세가 된것이다.

참으로 미국식허세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례가 아닐수 없다. 바다에서 전투함선들이 련이어 충돌사고를 내었다면 특지와 하늘에서는 이제 또 어떤 사고들이 잇달아 나겠는지.

짓밟힌 깡통처럼 흥해진 《존 맥케인》호의 물결, 이것은 그대로 《최강》을 떠드는 미국의 자화상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 썩은 몸통을 다시 살릴수는 없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출당시킨다 어찌다하며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민중의 탄핵심판결기에도 죽어가는 박근혜를 붙들고 울고불고하던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박근혜가 거처장스러워졌는가.

《보수혁신의 출발은 박근혜출당이다.》, 《과거의 적폐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한다.》, 《(국정) 파탄세력을 정리해야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서 박근혜출당문제를 함께 당안에서 친박세력을 쫓아낼 기도까지 내놓고 드러내는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신세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제와서 그런다고 반역당의 썩은 체질이 야 어디 가겠는가. 썩은 몸통에서 일부를 떼어낸다고 해서 그 몸통이 다시 생신해질수는 없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리치를 유독 《자유한국당》 패거리들만 모르는것 같다. 박근혜년을 제물로 바치고 친박근혜파를 청산한다고 해서 이미 적폐본산, 박근혜부역당으로 락인된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달라질수는 없다.

더우기 가관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박근혜를 출당시키면 보수정당에 뿌리를 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다스니, 친박세력을 청산해야 《바른정당》이 돌아올 명분도 생긴다스니 하며 어리석게 교대고있는것이 다. 그러나 《바른정당》 패거리들은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누더기가 된 《자유한국당》 해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다며 발끈해나서고있다.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박근혜출당과 친박계청산을 떠드는때는 저들이 주도하는 《보수대통합》을 실현하여 다음해 지방자치제선거에 나서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그러나 저들을 제물로

삼아 살길을 열어보려는 비박세력에게 친박세력이 강하게 반발하여나서고있고 제 주체에 보수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해보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놀음에 《바른정당》 또한 반격을 가하고 있어 보수세력내부의 갈등과 모순, 개싸움질은 계속되고있다.

박근혜출당과 친박계청산 문제를 놓고 벌리는 보수야당들의 주도권다툼은 하나의 정치만화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더러운 보수패당은 레외없이 한바리에 실어 매장되어야 할 폐물들이라고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 핵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21일부터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침전쟁연습에도 미제침략군과 피괴군의 술한 병력과 살인장비들, 피괴들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군수, 민간업체들의 방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이 총동원되고있다.

여기에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7개의 추종국가군대들까지 합세하고있다. 남조선전역에 화약내풍기는 살풍경을 펼쳐놓고도 미국과 피괴패당은 도적이 제발 저러나한다는 격으로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병력수가 줄어들었다느니,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계획이 취소되었다느니 뉘나 하며 우리의 경계심과 내외의 비난여론을 누잠해보려고 교활하게 돌아대고있다.

지어 이번 북침전쟁연습도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행동은 더욱 아니라며 백일하에 드러난 도발광기를 합리화해보려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하지만 횡포무도한 날강도행위를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보자기로 감싸기에는 너무도 침에하고 위태로운 것이 이번 전쟁연습이며 막을수없이 격화일로로 치닫고있는것이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광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는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편대들이 항시적인 출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조선반도수역에서 행동하게 된 미해군 7함대에는 2배로 증강된 핵항공모함전단들과 이지스함들이 출동대기태세에 있다.

20일부터는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할 미태평양군사령관, 미전략군사령관, 미싸일방위국장을 비롯한 미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거의 동시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부대들을 점검하며 설쳐대고있다.

이번 북침전쟁연습이 《작전계획 5015》

에 따른 《북수뇌부제거작전》과 《북의 대량살상무기시설타격》에 기본을 두고있다는것도 숨기지 않고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우리의 초강경대응공세에 질겁하여 움츠러들었던 《군사적대응》이니, 《예방전쟁》이니 하는 폭언들이 또다시 튀어나오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것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야망이며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것이 피괴패당의 북침야욕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북침현훈중에 빠져 대책없는 객기를 부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다시한번 선군조선의 무자비한 보복의지와 천만군민의 격노한 멸적의 기개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피괴패당이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에게 대한 적대의사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에 강력히 대처해나가는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이다.

우리가 오만무례한 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올바른 선택을 할데 대하여 경고도 하고 개입할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러대며 죽지 못해 목살을 앓는 얼빠진자들이 다름아닌 미국과 피괴패당이다.

리성적인 사고가 완전히 결여되어있고 초보적인 판별력조차 상실한 이런 전쟁미치광이들, 미련하고 아둔한 정신적미숙아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오직 힘으로 다스리는것만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과 피괴패당은 이미 천명한 우리공화국정부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성명, 조선인민군 전략군대변인성명의 자자구구를 다시금 새겨보고 모가지에 서슬푸른 비수가 박히는 력사적순간

을 모면하려면 마땅히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맞선 상대가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되며 제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뒤일을 감당하지도 못할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보복이 두려워 불안과 공포에 떠는 가련한 물골이 국제사회앞에서 얼마나 추하게 비쳐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오늘의 상황에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피괴패당 역시 낭마작같은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걸고 《동맹강화》를 떠들어대야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차레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풍수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놀아대는 꼴이 온 겨레의 저주속에 초불민심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것이 현 피괴정권의 대결행태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과 피괴패당은 물론 오늘의 북침전쟁연습수동에 편승하고있는 영국과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추종국가들에도 전쟁부나비들의 불장난에 춤을 추다가는 함께 타죽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멸적의 보복의지로 피를 끓이고있는 우리가 핵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를 결코 지켜만 보고있지 않으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운명의 분초를 다루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가 더욱 참담해지지 않도록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제106(2017)년 8월 23일 평 양

최근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련이어 남조선에 쓸어들어와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미래평양군사령관 해리스, 미전략군사령관 하이튼, 미싸일방위국장 그리브스 등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것을 전후하여 거의 동시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침략전쟁을 직접 담당집행한다고 하는 이자들은 남조선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을 만나 반공화국대결모의관을 벌려놓는가 하면 합동군사연습 진행정형을 현지에서 점검하는 놀음을 벌리며 부산을 괴워했다.

특히 22일에는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합동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 반도에 제공할것》이라느니, 《련합연습은 굳건한 (한) 미동맹과 철통같은 련합방위태세의 상징》이라느니 뉘나 하며 저들의 《안보공약》에 대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불안을 누잠하고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히려는 속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었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의 이번 행각은 북침전쟁각본과 그 준비정형을 현지에서 최종확인하고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을 부추겨 실천에 옮기기 위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행각이다.

현실은 지난 조선전쟁전야에 있는 전쟁상인 덜레스의 38° 선행각때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지난 60여년전 덜레스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군의 전쟁준비정형을 확인하고 전쟁지시를 주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남조선군은 38° 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북으로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조선반도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왔던 조선전쟁의 서막을 열어제긴 미상전의 현지점검이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또 다시 반복되고있는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에 질겁한 미국의 백악관에서 《북핵예방전쟁》론이 어지럽게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속에 이번 미군부우두머리들의 현지로해점검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광기가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남조선호전광들을 《한미동맹》의 울가미에 든든히 얽어매놓고 북침전쟁의 돌격대, 총알받이로 내몰려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홍심이 라는것을 다시금 엿볼수 있게 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호전적인 객기로 그 누구를 놀래우거나 어쩔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공화국은 이미 가질것은 다 가지고 침략세력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즉시 대응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이 끝끝내 침략의 불을 질러온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된때를 안기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이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는다는 격언을 호전광들은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황진옥

### 전쟁부나비들의 남조선행각

## 합동군사연습은 선제공격을 위한 무력시위,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라

### 남조선단체들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21일 서울에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발광적인 북침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민중총력기투쟁본부는 광화문앞에서 전쟁연습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다.

단체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수많은 병력과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들이 투입되고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전개되는 대규모전쟁연습이라고 밝혔다.

최근년간에는 《북안정화작전》, 《맞춤형억제전략》과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작전계획 5015》 등이 적용된것으로 하여 합동군사연습의 공격성이 날로 강화되었다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조선반도위기가 격화되는 속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남조선에 전개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기가 실질적인 전쟁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남조선과 미국이 상대방의 력밑에서 선제공격연습을 강행하는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고 단체들은 항의하였다.

단체들은 현 집권자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결방도를 내놓고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의 항구적평화를 위해서도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평화가 민생이고 통일이 복지이기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웨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합동군사연습이 끝날 때까지 전지역에서 반전시위와 집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특히 미국대사관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평화정부수립과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청와대앞에서 반전서명운동을 진행한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발언자들은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각계층이 참가한 반전서명운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들은 서명자들이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이 계속 실패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미국 당국이 《싸드》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며 북과의 외교협상을 시작할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기를 해소하려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진실을 가려보는 눈이 흐려지면 불의가 판을 치기마련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격화될대로 격화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극단상황에 처하여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긴장한 상태가 아차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 터져나오고있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엉켜 있는 조선반도에서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온 강도의 나라 미국과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떠선 세계 사회주의의 보루인 조선사이에 사상초유의 핵대결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우려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초긴장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내부는 물론 온 세계가 벽적 뚫고있다.

이런 속에서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는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책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반도정세가 전쟁국면으로 치닫게 된 책임이 조선에 있다고 강변하고있다.

조선이 하지 않던 핵시험을 5차례나 하고 대륙간탄도로켓까지 개발하여 세계면전에서 보란듯이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론거》를 내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핵과 탄도로켓개발을 《범죄》로, 《도발》로 몰아대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물론 세계가 이제 는 늘 조선의 위협속에 살지 않던 안되게 되었다고 떠들고있다.

말하자면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정치를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시시콜콜 참여하고 있는 일부 주변대국들은 악화된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책임이 조선에도 있고 미국에게도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때문에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긴장국면에 처한 오늘의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더불어 주변나라들도 긴장한 정세를 의면할수 없으니 유관국들이 마주앉아야 한다는 말도 하고있다.

이러한 뽕방책임론, 유관국책임론을 들고나오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첨예한 현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암살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침략과 전쟁도발책동, 포악한 경제체제와 봉쇄책동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 온 전대미문의 가장 집요하고 가혹한 행위라고 규탄하고있다.

그러면서 핵폭동을 휘두르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가장 파렴치하고 로골적인 핵위협과 핵전쟁공갈에 대처하여 부득불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것을 근거로 들이대고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핵 및 탄도로켓개발은 주권국가의 생명인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이며 따라서 그것으로 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전쟁국면으로 번져진것은 아니라고 사리정연하게 말하고있다.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부당한가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랑철하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제기된 각이한 주장의 옳고그름을 판별하자면

첫째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역사적 연원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격화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은 도이칠란트나 일본과 같은 전범국도 전패국도 아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마땅히 자주독립을 누려야 할 평화애호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새 사회, 새 생활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지향을 여지없이 짓밟고 제멋대로 38° 선에 군사분계선이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놓고 불법무법으로 이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였다.

그리고는 손때묻혀 기른 주구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에로 부추기다못해 그들과 함께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고 원자탄을 사용할 흉계까지 꾸려잡았이 드러냈다.

전후에는 침략전쟁에서 당한 대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에 수만명의 침략군과 수천기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이제 나저제나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1960년대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을, 1970년대에는 판문점사건을, 그후에도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그때마다 《전면전도 불사할것》이라고 조선을 위협공갈하였다.

핵탄을 적재한 항공모함타격단들과 전략폭격기편대들의 조선반도지역에 대한 빈번한 출몰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 공갈의 대표적실례이다.

결국 미국은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으로,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인 긴장국면으로 몰아온 호전국가로 낙인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연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고 누구의 주장이 그른가에 대한 대답을 쉽게 찾을수 있게 해줄것이다.

둘째로,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공정한 립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평양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

같은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조선인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자위적핵무력건설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최근년간 조선이 진행한 여러차례의 핵시험과 탄도로켓시험발사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이고 자위적핵무력강화를 위한 길에서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주권국가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 전쟁행위를 돌이켜볼 대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상대방의 자위적조치에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조선에 대한 초강력제재조치를 련속 취하는 한편 《북정권교체》와 지어 이 나라의 《지도부제거》까지 시도하고있다.

더는 참을수 없는 사태앞에서 조선은 얼마전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버릇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때라도 미국이 저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자중자숙하였다면 사태가 달리 되었을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트럼프 미행정부는 대책없는 폭언과 포악한 제재, 군사적행동으로 맞대응해나왔다.

지어 감히 《전쟁불사》요, 《참수작전》이요, 《예방전쟁》이요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악명을 떨친 《네이비 셸》 등 레로전담특수부대들을 남조선에 긴급투입하고 《B-52》, 《B-1B》, 《B-2A》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지상과 해상, 공중전략자산들과 《F-22》 스텔스전투기편대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며 전례없는 전쟁광기를 부러웠다.

이런 날강도적인 횡포와 위협을 조선이 어떻게 묵묵히 앉아 감수하며 당하기만 하겠는가.

최근 조선이 판도조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은 결국 미국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1일부터 괴뢰군부호전광들과 함께 또다시 조선을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

지금까지 조선은 미국땅가까이에 단 한명의 병사도 파견한적이 없고 미국본토주변에서 혼련단 한발 날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해마다 방대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키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전쟁연습들을 그칠 사이없이 벌려놓고있다.

이러한 북침전쟁연습들은 사실상 실전단계에로 넘어가기 위한 예비전쟁으로서 그 위험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만일 조선이 핵전략수단을 동원하

여 미국의 코앞에서 이러한 방대한 군사훈련을 때없이 벌여놓는다면 미국이 가만 있을수있는가 하는 것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을 더 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수 있게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셋째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조선반도문제를 놓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공정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똑바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력사적인 연원과 벌어지고있는 현 사태의 진상은 덮어두고 조선이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있다고 미국이 떠들어대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여론화하면서 무작정 그에 따른 제재결의를 채택하는데 급급하고있다.

그렇게 채택된 유엔 《대조선제재결의》만 해도 제825호, 제1695호,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제2094호, 제2270호, 제2321호, 제2356호, 제2371호 등 무려 10건이나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 잃고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로 전락되고만것이다.

그러다나니 유엔헌장과 국제법규도 안중에 없이 미국이 시키는대로 자기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침해하는 결의들을 채택하는 망랑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야말로 지금 세계는 옳고그름도 판단함이 없이 미국이 《이》하면 다같이 《이》하는 세상으로 되어가고있다.

지어 지난 시기에는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유엔무대에서 대를 세우던 일부 주변국들까지 미국의 강권과 허세에 겁을 먹고 그앞에 납작 엎드리는 지경이 되었다.

이 나라들이 핵을 휘둘러대는 미국의 강권과 핍박, 수모를 더이상 감내할수 없어 어떻게 핵개발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고심참담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은 력사적사실로 생생히 남아있다.

오죽하였으면 바지를 저당잡히고 수억의 인공중에서 절반이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량탄일성(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이러한 압력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고행의 길을 걸을 때 그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것은 바로 조선이었다.

그러한 주변대국들이 개구리 울챙이때 생각을 못한다고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에 대처한 조선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한사코 가로막으며 지어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에 꺼리낌없이 동참해나서고있으니 여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량심과 신의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 잃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범죄문서를 조작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유엔과 미국의 강권에 굴복하여 그에 극구 추종하는 덩치큰 주변나라들의 온당치 못한 행태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고있다는것은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바로 공정성과 정의, 원칙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량장관속에서 미국은 《정세악화》니, 《세계에 대한 위협》이니, 《인권》이니 하는 조선에 대한 온갖 외곡날조된 몰락어론들을 실세없이 조작하여 류포시키며 제세상처럼 날치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말살할수도 없는 법이다.

얼마전 조선을 방문하였던 유럽사람들은 자기들이 듣던바와는 너무도 판이한 현실을 목격하고는 실업자가 없는 나라,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전민이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가는 나라, 부모없는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들이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이런 나라도 있는가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인민적시책의 혜택속에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며 깨일에 대한 랑판에 넘쳐있는 조선의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 것이다.

미국사람들까지도 조선을 방문하고는 이 행성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인간복지사회, 지상천국이라고 격찬하고있다.

현실은 바로 이러하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러한 현실은 한사코 부정하고 조선을 삶이 없고 격폐되고 침체한 나라로 매도하며 그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여론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진실을 가려보는 눈이 흐려있지 않다면 누구든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주장들가운데서 어느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할수 있을 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파멸하는 것은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였다.

부질없이 대조선암살책동에 광분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든 격이 된 미국의 가련한 신세는 참으로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미국이 여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모한 도박에 매여달린다면 비극적종말의 나락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드는 처참한 결과밖에 차례질것 이 없을 것이다.

미국에 비위를 맞추며 추종하는 세력들도 그것이 결코 남의 운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박사 정 명 철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신중치 못한 발언을 계속 마구 늘어놓으며 마구잡이식정치를 하고있어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여론의 비난과 규탄, 조소의 대상이 되고있다.

최근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에 질겁한 트럼프가 《세계가 본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라고 광기를 부리자 세계가 경악하며 저주를 퍼붓고있는것은 그 단편적실례이다.

트럼프의 망언이 전해지자 미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명리하지 못한 처사》, 《악화된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수사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미군무력사용권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지어 민주당소속 하원의원

61명은 트럼프의 발언들은 핵전쟁의 망령을 불러올수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사고를 정돈시켜주고 언행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나섰는가 하면 전직 미국고위당국자와 과 전문가들, 퇴역장교들은 트럼프를 《란폭한 발언으로 상

대고 한다. 투기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트럼프는 지금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저렇다는 투기식으로 정치를 하고있다. 이로 하여 백악관과 미국무성관계자들과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대조선 정책을 비롯한 트럼프의 정책

들이 오락가락하고있다고 하면서 《조를 거치지 않은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정책결정에 정부관료들이 갈팡질팡하고있다》, 《요즘 국무성은 파산 직전에 이른 기업과 같다》고 개탄하고있다.

그러나 하연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언론들은 《공직경력이 없 는 트럼프가 북핵문제와 같은

국제적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의문스럽다》, 《트럼프가 국방성을 기습적으로 흔들고있다》, 《트럼프가 돌발적인 문제들을 내던지면 참모들은 뒤수습을 하느라 맘을 췌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참모 들만해도 14명이나 교체하였

과 경제계, 종교계들과 CNN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이 트럼프는 《미국의 안녕에 위협한 사람》이라며 저주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탄핵, 사

회를 요구하는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률은 30%대중반으로서 력대 미국 대통령들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들이 미국전역을 휩쓸고있다. 시위자들은 《력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쓴 간판들을 들고 《트럼프를 타도하라. 국

민들이여 일어나라》고 웨치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며칠전까지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있었던 배넌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끝났다》, 《그가 년내에 사임할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미주리주의 한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트럼프대통령이 암살되기를 바란다》는 글까지 올려 트럼프를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세계여론들은 정치의 정자도,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한갓 투기업자에 불과한 트럼프가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을 세계면전에서 망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처버리게 하는것으로 하여 《위더 게이트사건》으로 백악관에서 쫓겨난 닉슨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 미국을 힘관속에 몰아가는 트럼프